

‘러시아 제2 경제대란설’ 기사관련 긴급조사보고

연합통신(모스크바 발) 기사는 최근 루블화 급락과 환율 방어로 인한 **외환보유액 급감** 현상에 대해 러시아의 1998년 모라토리엄 때와 비슷한 경제대란 재현을 우려하고 있음.

- 그러나 **EIU**는 이와 반대로, 루블화 폭락이나 외채 디폴트선언과 같은 **위기 가능성은 매우 적다(highly unlikely)**고 분석함.

(EIU, Viewswire, 2001. 12. 14, Country Briefing)

- ▶ 최근 외환보유액 25억 달러 감소의 1/2은 외채상환 (10억 달러 유로채 상환), 1/2은 환율방어를 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것임.
(중앙은행의 불개입시 루블화의 단기적 불안정 가능성은 있음)

- ▶ 루블화 가치 급락에 대하여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구매력기준으로 루블화는 오히려 평가절상되어 왔음.

→ 오히려 **10%까지 절하 허용도 가능할**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세계경제 침체 시기에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음.

- ▶ 그밖에도 1998년 상황과는 달리, 재정수지 흑자(GDP 3%), 8개월 수입분의 외환보유액(360억\$), 1999년 이후 연속 플러스 성장세, 구조조정 성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(뒷장 표 참조).

- 한편, 11. 28일 **Moody's**도 두단계 신용등급 상향 (B2→Ba3, 안정적)

- 12월 OECD/EDRC 러시아 경제검토회의(한국, EC, 영국 참가)에서도 유가하락의 경우에도 배럴당 10\$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, 위기상황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음.

⇒ 최근 2주간 환율 동향으로 위기 재현을 우려하기에는 불충분하며,
현재로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대응, 국제금융기구의 태도 등을 주
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1998. 8월 위기 직전과 현재의 여건 비교

	1998. 8월 위기 직전	2001. 12월 현재
국제유가 (배럴당)	10~12 달러	18 달러
과거 경제성장	1990~96년 연속 마이너스	1999~2001 연속 플러스
재정적자/GDP	-7.9% (1997)	+3.0% (2001)
외환보유액	150억 달러 (2~3개월 수입분)	360억 달러 (8개월 수입분)
외채 및 상환태도	1800억 달러	1560억 달러 - 런던클럽합의로 채무 부담 경감 - 채무 조기상환 중)
경제개혁	정 체	- 기업부문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
IMF 등 태도	- 개혁부진으로 지원에 부정적 - IMF 자금고갈 루머	- IMF는 개혁을 긍정적 평가 - 외화유입 충분, 지원 불필요 판단 - 미국과의 관계 강화